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8월 30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< 믿음으로 산다는 것 >

히브리서 11:39,40 / 새찬송가 379 (통일 429)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

1.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

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, 즉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(롬1:17).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.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선택(앞당겨 취하는 것)하였습니다(히11:7,8),(히11:24-26).

2.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의 선택입니다

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. 그래서 축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믿음으로 그들은 먼저 행동합니다. 이것이 성령충만한 믿음입니다(행2:17), (히11:1,2).

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의 중심에 또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. 하나님을 뵈게 될 미래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기기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. 또 이미 응답받았기에 앞서 기도로 구합니다(막11:24).

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조차 앞당겨 취합니다. 때가 되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부인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나아가 하늘 나라 즉 부활 영생도 미리 앞당겨 받았음을 믿고 오늘을 삽니다(고전15:19,20).

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 기준으로 미래 즉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택했습니다(히11:39,40).

3.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입니다

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(마6:10).

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점점 좋아져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세상에 전쟁과 재앙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이뤄졌습니다.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

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뤄졌음과 아직 이뤄지지 않음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(마12:28).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지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. 그렇기에 이 땅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저주와 죽음이 가득합니다.

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.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늘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한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.

< 적용 & 실천 >

눈에 펼쳐진 상황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.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갑시다.